



## 근로자 1인당 소득, 광역 단체 중 '세종시'가 가장 높아

- ▶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결과로 파악한 시도별 근로소득의 차이와 상하위 소득 격차를 알아 본다. 직장인 1인당 총급여액의 중간값인 '중위소득'의 경우 전국 평균이 3,133만 원이었고, 17개 시도 중 7개 시도만이 평균을 상회했다. '세종'이 4,058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이 2,757만 원으로 가장 적어 격차가 1,300만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시도별 직장인 중위소득 (2022년 총급여 기준\*\*, 만 원)

지역	중위소득	지역	중위소득	지역	중위소득
세종	4,058	충북	3,154	부산	2,777
울산	3,600	경남	3,107	광주	2,767
서울	3,297	경북	3,104	제주	2,763
충남	3,270	전남	3,050	대구	2,760
경기	3,184	인천	3,011	전북	2,757
대전	3,159	강원	2,820	<b>전국 평균 3,133만 원</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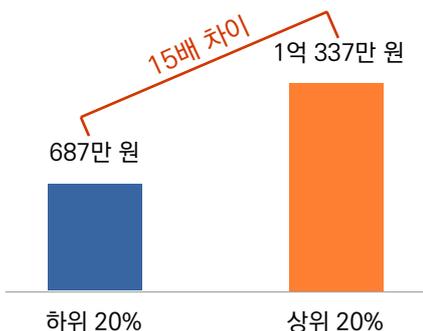
\*자료 출처: 국회의원 양경숙 의원실 보도자료, 상위 0.1%의 연봉도 시별도 3배 차이(원자료: 국세청), 2024.01.26

\*\*총급여액 = 과세대상 근로소득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식대 등)

### ◎ 근로 소득 상위 20%, 하위 20%의 15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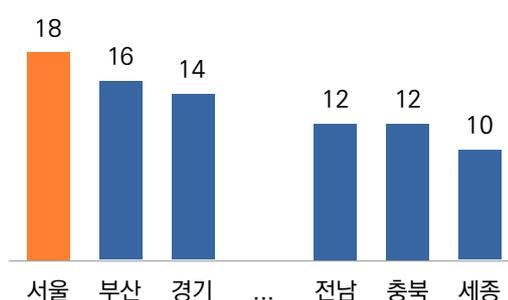
- ▶ 시도별 소득 격차와 양극화를 파악하기 위한 5분위 배율(하위 20% 소득 대비 상위 20% 소득)을 살펴보면, 전국 근로소득 상위 20%의 평균액은 1억 337만 원으로 하위 20%인 687만 원의 15배에 달했다.
- ▶ 가장 소득 격차가 심한 곳은 서울로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무려 18배의 소득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곳은 세종으로 10배였다. 우리나라의 지역별 소득 격차도 크고 지역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이다.

[그림] 평균 근로소득 비교: 상위 20% vs 하위 20%



[그림] 지역별 5분위 배율

(상위 20% 소득/하위 20% 소득, 상하위 3위, %)



\*자료 출처: 국회의원 양경숙 의원실 보도자료, 상위 0.1%의 연봉도 시별도 3배 차이(원자료: 국세청), 2024.01.26.